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 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관련 연해주 출장
2. 출장목적: 글로벌 식품가치사슬(GVC)에 따른 연해주 진출 기업의 현황 파악 및 애로점 조사
3. 출장지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4. 출장기간: 2010.07.14(수) ~ 2010.07.17(토) [3박 4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권태진
	초청연구원	남민지

6. 출장일정

날짜	방문기관, 지역	비고
7.14(수)	인천→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우수리스크 서울사료 농장 방문	
7.15(목)	아그로상생 방문 현대 제르노 농장 방문	
7.16(금)	동북아평화연대 프림코 농장 방문 인탑스 농장 방문 우수리스크 도소매시장 방문	
7.17(토)	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인천	

II. 주요 출장 결과

1. 연해주 농업 개황

- 연해주의 농경지 총면적은 240만 ha이나 이중 절반 정도만이 영농에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농경지는 거의 방치 상태임.
 - 이 때문에 농업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농경지의 이용율이 낮은 것은 개혁 개방 이후 가족농이 창설되었지만 이 중 많은 농민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개별 영농에 실패한 농민들은 영농활동을 축소하게 되었기 때문임.
 - 정부는 가족농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소비재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농자재는 4,000~5,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에서 수송해 오고 있으며 물류비 때문에 가격이 높음.
 - 여기에다 유통 부문은 대부분 마피아가 장악하여 농자재의 수입을 통제하거나 농산물 판매를 통제함으로써 농민들은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영농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음.
- 연해주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상기온 기간이 조금만 있어도 작황에 문제가 생김.
 - 하지만 근래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일조량뿐만 아니라 강수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해주는 연간 강우량이 700mm로 우리나라의 반이지만 여름에 집중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중 비교적 고르게 오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적음.
-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는 집단영농체제인 콜호즈, 소포즈를 통한 영농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었고 관리체계도 원활히 작동하였음.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가족농이 창설되면서 각자의 농장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농민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연해주 농업은 퇴락과정을 거치게 되었음.
 - 정부는 농가당 10~15ha 정도씩 농지를 분배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불하받은 농지를 등록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의 총 면적은 남한의 70배에 달하나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함. 넓은 땅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연해주의 농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해주 정부는 고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해주 정부 또한 한국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아그로상생을 필두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단체가 연해주에 진출하여 영농을 하고 있음.
- 곡물 재배가 가능한 농경지의 임차료는 ha당 연간 1~1.5 달러 수준으로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채소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지는 임차료가 ha당 5,000루블(한화 약 20만원)로 상당히 높음.
- 연해주는 농지 자원 이외에도 산림과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벌목, 광물업, 수산업 등을 통해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음.

2. 서울사료 연해주농장

- 서울사료는 2010년 옥수수, 귀리, 일반콩, 유기농콩, 티모시를 재배함.
 - 옥수수, 귀리, 일반콩, 유기농콩의 재배면적은 각각 398.4ha, 389.3ha, 1,323.7ha, 200.0ha임
 - 금년에는 유기농콩 재배면적이 많지 않음.
 - 일반콩의 경우 프리13, 베네라, 프리69 종자를 사용함.
 - 예전에는 콩을 산파했으나 이번에는 38cm 간격으로 줄파하였음.
- 티모시(사료용)
 - 티모시는 야생하는 다년초로 줄기나 잎이 부드러워 목초로도 재배됨.
 - 금년에는 티모시 재배면적이 459.2ha임. 이 중 240.8ha에서는 티모시를 귀리와 함께 혼파하여 경작하고 있음.
 - 연해주에서는 보통 티모시를 1년에 두 번 수확함. 티모시는 다년생 작물로 보통 5, 6년 가기 때문에 총 10~12회 수확 가능함.
 - 작년에는 잡초, 특히 강아지풀이 많아서 티모시 재배가 용이치 않았음. 티모시를 경작해도 티모시 보다 강아지풀이 더 많은 형국이 연출됨. 하지만 올해에는 티모시 파종 전 제초제를 사용함에 따라 작년 같은 상황은 사라짐.

- 티모시와 귀리는 재배 후 건조로 인근 농장에 판매하고 있음. 일부는 한국으로도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음.
- 야초의 경우 300kg에 20,000원으로 kg당 약 70원에 판매됨. 그러나 티모시는 이 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소비자가격이 kg당 500원임.

<서울사료 그리고리예프카 농장의 2010년 작물 재배 현황>



<건조 중인 티모시>



- 콩, 밀은 윤작하고 있음.
 - 이는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 연해주에서의 밀 재배는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판로가 없어도 콩과 윤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밀은 대량소비처가 없어 판로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현재 한국은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에서 밀을 수입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에서의 밀 수입은 높은 유통비를 수반함.
 - 연해주에 현재 밀 제분공장이 없으므로 제분공장을 만들어 제분 후 한국으로 수출한다면 연해주 생산 밀의 판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유통비 부문에서 우크라이나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제분 후 한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이유는 통밀의 경우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제분된 것은 관세가 없기 때문임.
 -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밀이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적합한지의 문제가 관건일 것임.



- 농기계
 - 콤바인(수확기): 미국산(445마력) 1대, 러시아산(195마력) 2대
 - 트랙터 총 11대 보유(475마력 2대, 375마력 2대, 225마력 1대, 122마력 1대, 외

러시아산 6대)

- 이 밖에 컬티베이터, 스프레이어(폭 36m, 4,500리터 용량), 예취기(152마력, 폭 4m), 비료살포기, 베일러 등 부속장비들도 있음.
- 컬티베이터의 폭은 18m 정도 됨. 하루에 대형장비를 이용할 경우 디스크 작업은 50ha, 파종은 4조의 경우 90ha, 하루 작업량이 27만 평임. 경운은 1일 100~120ha까지 가능하나 작업시간이 15시간 정도로 늘어남.
- 티모시 예취기 1대(152마력, 폭은 4m, 10시간 기준 1일 35~40ha 작업함.
- 농기계는 작업시기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해내는 것이 관건임.

3. 아그로상생

- 아그로상생은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연해주에 진출한지 8년째임.
- 아그로상생은 총 12만 7천 ha의 경작 가능한 농지를 확보하고 있음.
 - 이 중 현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농지는 현재 70,000 ha임.
- 아그로상생에서 재배하는 밀의 품종은 프리모리 39호, 40호임.
 - 프리모리 40호의 경우 글루틴 함량이 높으며 수량은 1.4톤/ha 정도임.
- 현재 한국에서는 곡물메이저를 통해 밀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주체인 제분업체는 곡물메이저가 가격을 올리면 순응하는 시스템임.
 - 현재 한국에서는 CJ, 대한제분 등 대량 공급처에서 밀가루 공급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원료가 되는 밀의 수입도 이들 업체들이 결정함.
 -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하여 연해주에 직접 제분공장을 짓고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한다면 현재의 카르텔구조를 타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보이나 수출경쟁력, 품질 등 여러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밀이 한국 제분업체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흑해 주변의 밀 주산지의 경우 ha당 5-8톤의 생산량을 보이지만 연해주의 경우 ha당 4톤 미만임. 연해주는 밀의 생산성이 낮는데다 품질도 떨어짐.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밀은 글루텐 함량이 때문에 박력분으로만 이용 가능함.
 - 아그로상생의 경우 2009년 식용에 적합한 종자를 심어서 밀가루의 품질을 테스트한 결과 중력분 수준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밀이 높은 유통비를 수반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수입밀

을 대체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

-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맛이 고소함.
 - 러시아는 현재 GMO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콩의 품질은 일단 한국의 식용 기준을 통과한다고 할 수 있음. 식용콩의 경우 비의도적 Non-GMO 혼입비율이 3% 이하여야 함.
 - 하지만 연해주에서 생산된 콩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TRQ(저율할당관세) 적용을 받아야 함. 현재 콩의 TRQ 관세는 5%(장유 기준, 사료용의 경우 0%이나 정상적인 관세는 487%임. TRQ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실수요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관건은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러시아는 콩에 대해 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연해주에서 생산된 콩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함.
 - 한국의 식용콩(Non-GMO) 연간 수요는 424,000톤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은 134,000톤 내외여서 전체 소비량의 62.9%인 280,000 여 톤이 TRQ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음. 수입량 중 225,000톤이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며 나머지는 실수요자(11,800톤)나 단체(30,000톤)에 배정됨. 이렇게 수입되는 콩은 저율관세(5%) 적용을 받음.
 - 현재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은 대부분 연해주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생산된 콩의 대부분은 콩기름용으로 소비됨.
 - 콩 소비가 높은 일본의 경우 관세가 매우 낮음. 대신 소비자 입맛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하지만 인증을 받고 유통경로를 한번 개척하면 그 이후에는 안정되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콩의 대일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14단계의 콩 선별기를 사용하나 러시아에서는 8단계의 선별기를 사용함.
 - 아그로상생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대부분 러시아산 또는 한국산임.
 - 한국에서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콩을 분쇄하여 수출하며 분쇄된 콩은 두부제조에 사용할 수 있음. 콩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콩을 바짝 건조시켜야 함.
- 농장에서 물 사용료는 1ha당 연간 약 4,000루블임.
 - 농장마다 물 사용료가 다름.
 - 농장에는 용수로와 배수호가 구분되어 있음.

<아그로상생의 2010년 농장별 파종 현황>

단위: ha

	보리	밀	귀리	벼	콩	옥수수	메밀	조사료	
								귀리	옥수수
그라즈단까	100	100	70	1,200	620				
멜구노프까	200		150	1,200	700				
일런까	390	64			1,300	300	200		
익짜브리스꼬예		115	440		1,100				
빠르보마이스꼬예					1,220				150
바지모프까				1,080	900				
루비노프까	40	40	95		164				
네스체르보까					300			120	
빠뜨로비치		105		500	500				
소계	730	424	755	3,980	6,807	300	200	120	150
총계	13,466								
2010년 계획량	1,175	855	1,380	4,500	5,600	400			

주: 2010년 7월 14일 현재 현황임.



- 아그로상생은 사회주의 시기 사용하던 곡물수집소를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러시아 건물은 대부분 땅에서 2m 위에 건축함. 이는 겨울에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위의 그림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작년에 수확한 밀임.
- 작년까지는 논에 건답복토직파방식을 택했으나 금년에는 봄에 비가 많이 와 담수직파 방식을 채택함.
 - 2009년에는 벼의 수량이 ha당 2톤에 미치지 못했음.
 - 올해 연해주의 벼농사 면적은 2만ha로 작년의 1.4만ha에 비해 늘어남.
 - 아그로상생의 올해 벼 파종 계획은 4,500ha임.
 - 아그로상생의 경우 최대 2만ha까지 벼 재배를 늘릴 수 있음,
- 현재 아그로상생은 숙소와 소방차 창고, 농기계, 포크레인 및 트레일러 창고 등으로 580 여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가 12,000대에 달함.
 - 인프라는 좋으나 생산관련 안정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4. 아그로현대

- 아그로현대는 호주 국적을 가진 Martin Tate가 설립한 하물제르노 농장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하여 현대제르노로 개명하고 다시 아그로현대로 개명함.
- 아그로현대 농장은 현재 8,000 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현대는 금년 안으로 추가로 8,000ha를 확보하여 16,000 ha까지 농지를 확보할 계획임. 장기적으로 현대는 전세계에서 40만 ha의 농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아그로현대는 현재 콩과 옥수수만 재배하고 있음.
 - 금년도 콩 파종면적은 3,100ha, 옥수수는 3,850ha임.
 - 금년도 콩과 옥수수는 5월 중순경 파종함
 - 콩은 미국 품종인 허드슨, 옥수수는 미국의 파이어니아 F1(교잡종) 옥수수 종자를 사용함.
- 콩의 경우 파종이 늦고 웃자라 수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함.
 - 2009년의 경우 콩의 수량은 ha당 1.72톤이었으나 금년은 2톤 정도의 수량이 예상되는데 콩의 경우 수량이 1.5~1.7톤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함.
 - 금년에는 전체 콩 파종면적 중 1,500ha는 전통적인 방식인 30인치 간격 24줄 파종기로 파종하고 700ha는 무경운(No-till), 500ha는 최소경운 방식을 채택

- 하여 과종을 하였으며 250ha 비료살포기를 이용하여 경운 후 산과함.
- 전세계의 콩 평균 생산량은 ha당 1.5톤임.
- 중국 흑룡강성의 경우 ha당 2.5~3.0톤의 수확고를 기록하고 있음.
- 옥수수의 경우 2009년 수량이 ha당 4.5톤으로 인근의 다른 농장에 비해 수량이 높았으며 금년의 수량 목표는 6.5톤임.
- 옥수수는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다 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낮음.
- 아그로현대는 4개의 2,750톤 규모 사일로를 보유하고 있음.
- 한 개는 현재 800톤의 옥수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세 개는 콩 보관에 사용하고 있음.
- 습도는 13.5%로 유지함.
- 현대식 사일로에 곡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 중에 발생하는 곡물 유실이 거의 없음.



5. 동북아평화연대 프림코 농장

- 동북아평화연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중국 조선족,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돕기 사업 등을 목표로 분리되어 나온 NGO임.
-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돕기 위하여 연해주에 우정마을 건설, 중앙아시아 출신 무국적 고려인을 위한 국적획득 지원 사업, 현지 독립운동 기념사업, 현지 고

구려 및 발해유적지 복원, 프리코 농장 운영, 연해주 현지 관광 가이드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동북아평화연대에서 운영하는 프리코농장의 목적은 이윤창출이 아니라 현지 고려인 고용 및 자체 운영금 충당 등에 있음.
- 금년에는 800ha에 콩을 심었으며, ha당 평균 0.7톤의 수확고를 보이고 있음.
 - 동북아평화연대에서는 무농약 유기농 콩만 재배하고 있음.
 - 콩종자는 모두 러시아 종자인 프리모리 69호임.
 - 러시아식 조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파종기는 모두 러시아산임.
 - 수확한 콩은 청국장 만드는 사업 및 고려인 정착지원사업에 사용됨.

<고려인 우정마을 방문>

-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되었음. 이들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정착함. 그러나 1991년 사회주의 체제의 소련연방이 붕괴되자 소련 체제 하에 있던 국가들이 각각 독립하게 되면서 자민족 우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함.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자민족 언어 사용 등의 문제로 다수의 고려인들은 다시 러시아로 향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연해주로 재이주 하고 있음. 동북아평화연대에서는 이들의 러시아로의 이주 및 러시아에서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려인 우정마을은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동북쪽 17km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재 33가구에 100여 명이 살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이 5가정, 러시아인이 6가정,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이 20가정임.
- 동북아 평화연대에서는 국회 결의사항으로 ‘연해주 고려인 정착지원 5개년 프로젝트’에 매년 1억 5천 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확정되자 2005년 12월 주식회사 바리의 꿈을 창업하였음.
 - 바리의 꿈에서는 고려인들이 직접 유기농콩을 이용한 무공해 청국장,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된 수익금을 고려인 정착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바리의 꿈에서 제조하는 청국장은 차가버섯과 콩을 결합한 차가청국장으로 고도원의 아침편지 산하 꽃피는 아침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했음.
 - 판매 초기에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한 적도 있지만 현재에는 판매량이 많이 감소하였음.

6. 아로(ARRO)프리모리에

- 인탑스에서 운영하는 아로프리모리에 농장은 구소련 시절 종자생산 농장이었음.
 - 현재 아로프리모리에 농장은 연해주가 지정한 채종농장임.
 - 아로프리모리에에는 일본, 한국에서 종자를 가져와 이곳에서 종자를 개량하며, 주정부 식량공사와의 계약 하에 원종 및 보급종을 공급함.
 - 종자용 콩은 전량 연해주농업연구소에서 구입하나 남은 물량의 경우 농장에서 직접 팔수도 있음.
 - 현재 연해주에는 10~11개의 채종포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투입재 보조금 제도가 있음.
- 연해주의 콩 종자 공급체계는 다음과 같음.
 - 연해주농업연구소 원원종 공급 -> 채종장 원종(super elite) 또는 1등급 종자를 주정부식량공사에 판매(계약물량) -> 채종장은 계약물량 이외의 종자를 일반 농장에 판매
 - 주정부는 종자 판매자에게 종자보조금을 지급하되 통상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불하지만 종자용 콩의 수요가 많을 경우 전체 종자 생산 물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기도 함.
- 러시아에서는 종자 구매, 판매 시 모두 보조금을 제공함.
 - 연해주에는 보조금 종류가 매우 많으나 실제 다 지급하지는 않음.
 - 예산 상황이나 담당자 재량권에 따라 크기는 10%까지도 차이가 남.
 - 종자, 비료, 농약의 경우 대개 보조금이 있음.
 - 농업경작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식량가격 인하를 위해 보조금이 지급됨.
 - 3~4년 전부터는 축산에 대한 보조금이 제일 큼.
 - 따라서 양돈, 낙농에 빨리 진출할수록 유리함.
- 작년의 경우 콩, 밀, 보리, 귀리, 메밀 모두 100톤을 계약했으나 50톤 밖에 수확하지 못했음.
- 인탑스에서는 총 10대의 사일로를 보유하고 있음. 현대화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두 사람이 10대를 다 관리하고 있음.
 - 각 사일로마다 곡물수량 및 수분 체크가 각각 가능함.



- 인탑스의 올해 콩생산량은 2,500톤을 예상하고 있음.
 - 현재 1,000ha의 면적에 경작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150ha에 콩을 심고 있음.
 - 장비 한계 때문에 대부분 중, 조생종이며 만생종은 심지 않음.
 - 생산성은 정선 후 ha당 1.2톤임.
- 콩 가격의 경우 올해 kg당 18루블을 예상했으나 아무르 쪽에서 콩이 넘어오면서 현재 가격이 12~12.5루블임. 인탑스의 경우는 현대식 사일로에서 콩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콩의 품질이 좋아 0.5루블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음.
 - 콩 판매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수출뿐이나 여기에는 극복해야 할 점이 많음.
 - 일본 홋카이도의 NON-GMO 콩 수입 가격이 kg당 2,500원 정도로 약 60루블 수준임. 따라서 일본으로의 콩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으로의 수출은 관세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TRQ 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인탑스는 DBS크루즈라는 종합 물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화물이 없어 적자 운영 상황임.
 - DBS크루즈는 한국 동해, 일본 돗토리현 사카미나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함.
 - 길이 140m, 폭 20m의 1만4000t급 크루즈선박로 458명이 탑승할 수 있음. 화물적재량은 20피트 컨테이너 130개임.
 - 구간별 거리는 동해항~일본 사카미나토 386km, 동해항~블라디보스톡 612km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는 블라디보스톡까지 최단 거리에 있음.

- 또한 일본과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첫 정기선임.
-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카이미나토까지 직항로의 경우 1박 2일 걸림.
- 일본 사카이미나토는 2항차, 블라디보스톡은 1항차임. 이를 이용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대 일본 곡물 수출이 가능함.

7. 우수리스크 도소매 시장(6km 시장)

- 김 니콜라이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시장으로서 우수리스크 도심으로부터 6km 떨어져 있어 6km 시장으로 불림.
-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중국산 제품임.
- 러시아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률로 인하여 상점에서 러시아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질적은 점주는 대부분 중국인임.
- 연해주 지역의 사람들이 생필품 도매 공급을 이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 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문을 닫을 시 연해주 일대에 큰 차질을 빚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8.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및 유관기업 간담회

- 참석자: 김무영(블라디보스톡 총영사), 태영곤(블라디보스톡 영사), 조성환(서울사료 연해주농장 대표), 임희택(아그로상생, 소장), 강명순(아그로상생, 대표), 김현동(프림코 농장 대표), 김용진(현대종합상사 바이오지원팀 부장), 김경덕(인탑스 대표),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민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아그로상생을 필두로 한 한국 기업들의 연해주 진출은 8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 진출 초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과 다른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
- 연해주에서 재배하는 콩의 경우 NON-GMO, 유기농 콩으로 콩의 품질이 상당히 뛰어나. 콩의 단백질 함량 또한 매우 높아 맛이 고소하여 한국의 소비자 입맛에도 적합함.
 - 뛰어난 맛,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콩 수입관세로 인해 연해주에서 재배되는 콩의 대한국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콩의 한국 수출을 위해 MMA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관심 또한 필요함.
 - 또한 낫또, 된장 등 콩의 수요가 높은 일본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 각 상사에서 연해주에서의 콩 수입을 위한 작업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현재 연해주에 8개의 한국업체가 진출해 있지만 작년에서야 연해주 진출 한국 농업관련 기관 모임인 연농회가 설립됨.
 - 연농회 설립으로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음.
 - 연농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연해주 진출 한국 농업관련 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향후 연해주 진출 농업관련 기관은 연해주 진출의 목적을 명확히 한 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닐 경우 실제적인 수입을 올리기 어려우므로 영농활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됨. 그러나 농장 주변 주민(고려인 포함)과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영리추구가 목적일 경우 대규모 농지에 기계화된 영농활동을 하게 되므로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짐. 그에 따라 농기계운용기사의 비협조 및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9. GVC(Global Value Chains) 분석

- GVC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출장 중 확인하거나 입수한 정보만으로는 GVC 분석이 불가능함.
- GVC 분석을 위해 연해주에서 영농 경험을 가지면서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자료를 수입할 필요가 있음.
- 잠정적으로 이창준씨(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교 7학기 수료)와 GVC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방안을 협의 중임.